



녹내장,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6년새 2배 증가... 검사만 잘 받아도 실명 막아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의 합창단 오디션에 뛰어난 성악실력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밝은 이경규의 모습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재 녹내장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세상의 빛을 점점 멀게 하는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이연안과 기흥서 원장의 도움으로 알았다.

녹내장은 왜 조기진단이 중요한가=녹내장의 경과를 시신경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면, 처음 진단시 실명 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로 안압이 잘 조절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조기에 발견되면 녹내장 치료는 더 용이하다.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면 녹내장을 발견했다면, 시신경의 손상을 아주 더디게 해 살아가는 동안 큰 이상 없이 지낼 수도 있다. 일단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좁아진 시야와 나빠진 시력은 회복이 어렵다. 원칙적으로 녹내장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전문의를 찾아 안압 검사와 안저검사로 시신경의 모양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3개월 전부터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야간에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를 기흥서 원장이 진찰하고 있다.

금연은 필수... 넥타이 등 목 죄는 옷 피해야

안압 조절 치료 꾸준히 하면 정상생활 가능

자에서 약 50명당 1명꼴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에 따르면 2000년 녹내장으로 청구한 환자가 18만 8000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31만 3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더욱 급속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과거에는 녹내장이란 병은 눈 안의 압력이 상승해 시신경에 손상을 줘 시력이 약해지는 병으로 인식돼 왔으나 현재는 안압이 주요한 위험요인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을 받아 시야장애를 동반하는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듯 서서히 진행돼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병이지만 실명은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녹내장인지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녹내장은 왜 조기진단이 중요한가=녹내장의 경과를 시신경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면, 처음 진단시 실명 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로 안압이 잘 조절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조기에 발견되면 녹내장 치료는 더 용이하다.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면 녹내장을 발견했다면, 시신경의 손상을 아주 더디게 해 살아가는 동안 큰 이상 없이 지낼 수도 있다. 일단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좁아진 시야와 나빠진 시력은 회복이 어렵다. 원칙적으로 녹내장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전문의를 찾아 안압 검사와 안저검사로 시신경의 모양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하고 사용하는 안약의 이름과 용법을 꼭 기억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목이 아플 때에도 약물을 빠짐없이 계속 사용해야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5분 이상 기다린 뒤 두 번째 안약을 사용해야 한다. 또 약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안과에서 재 처방을 받아야 하고, 예 약알레르기 등 녹내장 전문의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물, 커피, 차 등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담배는 꼭 끊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관악기나 풍선 같은 것을 많이 부는 것은 안압상승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너무 꼭 목이 끼는 옷이나 넥타이도 좋지 않고 복장은 되도록 목 부분이 편한 것이 좋다. 야채와 과일 등은 항산화물질이 많아 시신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일반 동경대의 연구에 의하면 생선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 평균안압이 더 낮았다고 한다. 고도근시, 비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녹내장 발생과 진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검사가 요구된다. 가족들도 검사 받아 보는 것이 좋는데 녹내장은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관여하나 2세에게 유전되는 유전병은 아니다. 소량의 술이나 저지방 음식은

안압을 떨어뜨리나 담배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녹내장 증상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갑작스러운 흥분이나 스트레스도 역시 안압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감정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녹내장 환자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진행한 녹내장인 경우 주변 시야 장애로 인해 도로운전 특히 야간 운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근시가 있는 녹내장 환자에서 장기간 컴퓨터 작업 등도 안압상승이나 시신경 손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너무 과도한 업무는 피해야 한다. 녹내장은 완치될 수 없고 평생 약물, 레이저치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안압을 조절해 시신경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적절한 치료만이 남아 있는 시야와 시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길이며 고혈압, 당뇨가 그러하듯 이 약, 수술 등으로 잘 조절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때문에 녹내장 발견 당시의 시력과 시야를 현상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치료이므로 녹내장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연안과 기흥서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소화불량·속쓰림... 내시경 망설이지 말라

위암, 조기발견 90% 완치 40대 이후 1년에 한번 검사



음식물을 받아들여 소화하는 위장. 위장은 식도와 연결된 부분으로 음식물을 받아 소화시키고 잠시 저장한 뒤, 유문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 보낸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상이 생기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배탈, 속 쓰림, 설사 등 여러 증상으로 SOS신호를 보내는데, 이 같은 경고를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게 문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조한수내과과장에게 위장검사에 대해 알아본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위장을 검사해야 한다. 내시경을 넣는 위내시경검사, 조영제를 마시고 X선 촬영을 진행하는 '조영활영검사'가 대표적이다. 위장에서 발견되는 병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꼽히는 위내시경검사는 위 안의 기포를 제거하는 약을 마시고 목에 마취한 후 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을 주사한 뒤,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다. 화면을 통해 위 안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중 어떤 병변을 발견하면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용종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내시경이 목을 통과할 때에는 압박감, 구역질, 가벼운 통증 등 견딜만하지만 다소 불편함이 있다. 견디기 어렵다면 수면내시경 검사를 선택하면 된다. 위장 조영활영검사는 조영제인 바륨(하얀 액체)과 발포제를 마신 뒤 X선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발포제는 탄산가스를 발생시켜 팽창해 바륨을 위벽에 도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탄산가스는 검고 바륨은 하얗게 나타남으로써 위벽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검사 중 불편감이 없고 시간도 10분 정도이므로 비교적 간편하다. 조영활영검사 결과 폐양이나 용종, 위암 등이 의심된다면 위내시경검사를 바로 실시해 조직을 검

사하는 등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위내시경검사나 위장조영활영 검사 모두 위궤양·위염·용종·위암 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20~30대는 가족력, 위장증상, 빈혈, 위 상태에 따라 1~2년에 한 번씩, 위암 발병이 급증하는 40대 이후 혹은 위 용종이 있었던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받도록 한다. 위장검사 시에는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해야 한다. 입상부나 입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조영활영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위내시경검사를 할 경우에는 뇌경색 후나 심장질환 등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출혈이 생기면 잘 멈추지 않으므로 검사 전 일주일이상 복용을 중지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첨단의료기술 몽고에 전수

몽골 국립암센터와 MOU 체결

화순전남대병원이 몽골 국립암센터와 지난 1일 MOU를 체결하고, 병원의 첨단의료기술을 몽골에 전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이번에는 몽골에 첨단의료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 받고 간 몽골 환자들을 현지에서 직접 만나 수술경과를 체크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개최한 '몽골

화순전남대병원 첨단의료기술 세미나'는 첨단관절치료기술 세계선도화사업단(단장 윤택표 교수) 주최로 열렸으며, 정신(신경외과) 교수·범희승(핵의학) 교수 및 강경도(정형외과) 임상교수 등이 참여해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했다. 이번 방문단에 참여한 4명의 화순전남대병원 교수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현지 의료계에 소개하는 한편 광주권 의료관개

대한 홍보활동도 벌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현지에서 상담을 받았던 환자들 중 암 분야 3명, 관절분야 6명이 치료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택표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수술하고 몽골로 돌아간 환자를 찾아가 후속조치와 함께 상담을 해준에 따라 현지인들의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단순히 외국인 환자 유치뿐만 아니라 한국의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복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일곡지구 30도로 버스 승강장형 상가건물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월릉부지, 북구 삼각동 180평 대출1억6천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